

Q  
&  
A

## 키리졸브/독수리 연습은?



## 세계 최대의 전쟁연습!

- ▶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은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최첨단 공격무기를 동원하여 60일 간이나 벌이는 세계 최대의 전쟁연습입니다.
- ▶ 특히, 올해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과 생·화학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 방안을 담고 있는 <맞춤형 억제 전략>과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<국지도발대비계획> 등 공세적인 전략이 처음 적용됩니다.



- ▶ 3월말에는 최단 시간 내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냉전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을 진행합니다. “상륙훈련은 전형적인 공격훈련” (합참 용어사전, 2004년)

Q  
&  
A

## 키리졸브/독수리 연습은?



## 핵전쟁 위기 불러와!

- ▶ 올해 연습에서 처음 적용한다는 <맞춤형 억제 전략>은 “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위협 단계/ 사용임박 단계/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북한이 핵·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” (문화일보 2013.10) 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.
- ▶ 이는 전쟁위기를 억제/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,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에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용 욕구를 높이게 되어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위험한 계획입니다.
- ▶ 더욱이 선제 타격대상에 북의 생·화학무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보다도 한미 양국군이 쉽게, 자주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는 점에서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Q  
&  
A

## 키리졸브/독수리 연습은?



## 대화에 찬물! 대결 격화!

- ▶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은 북한정권 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됩니다.
- ▶ 한미 당국은 '북한변화유도' (2014.1.6 한미외교장관회담)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
- ▶ 올해 연습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. 2003년 이라크 전 당시 민사작전에 참가했던 미 본토 1기갑사단이 경기북부에 배치된 것도 북한 급변 사태(북한 정권 붕괴)를 대비/유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.
- ▶ 북한의 변화를 군사적으로 유도하려는 키리졸브/독수리 연습은 북의 반발을 불러와 대결을 격화시키고,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.
- ▶ 한미당국은 군사연습을 멈추고,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.

Q  
&  
A

## 키리졸브/독수리 연습이 불법이라고?



유엔헌장, 헌법, 정전협정 위반!

- ▶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은 2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공격 연습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'무력의 위협'(2조4항)입니다.
- ▶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연습으로서 헌법 전문의 '평화 통일의 사명', 4조의 '평화적 통일정책 추진', 5조의 '침략적 전쟁의 부인'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.
- ▶ 해외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이 연습은 정전협정의 적대행위 금지(제2조 12항), 군사인원과 장비 반입금지(제2조 13항) 위반입니다.
- ▶ 이 연습은 평화적 통일,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을 규정한 7.4남북공동성명, 남북기본합의서, 6.15공동선언, 10.4선언 등 남북합의에도 위배됩니다.

Q  
&  
A

##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?



군사연습 멈추고,  
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 
대화를 재개해야!

- ▶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북미·남북 간에 오랜 불신에 기반한 적대관계가 한국전쟁 이래 계속되기 때문입니다.
- ▶ 북한 핵개발도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. (미 대서양 위원회 보고서 2007. 4)
- ▶ 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,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정책과 북한 핵무기를 동시에 폐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.
- ▶ 한미당국은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징표인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을 중단하고,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, 북미, 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